

北 비핵화·FTA·日 우경화 핫 이슈

■ 한·중 오늘 정상회담 의제는

환경분야 협력 확대 강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정상회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사구시' 차원에서 내실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만을 단독 방문하고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은 것도 달란한 한중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2일 한중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과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조로 한반도 신뢰외교를 구현해 동북아 협력시대를 여는 데 시 주석의 방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08년 설정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비롯해 시진핑이 또는 재한 시 긴급 구조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10여개의 협력 문건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북핵·일본 우경화 '핫이슈'=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뒤 발표될 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

지만,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고노담화 편휘에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 정상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 수석은 "양측은 동북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이슈와 관련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와 경제협력=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히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시장의 대폭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선식품 등 한국 농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원하는 등 양국은 '초민감 품목군'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한중FTA 시장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양국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와 원전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만큼 환전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이득도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비교

	
박근혜(63)	시진핑(62)
1952년 2월 2일 출생	1953년 6월 1일 출생
대구 중구 삼덕동 출신	베이징 출신
키 162cm, 혈액형 B형	키 약 180cm, 몸무게 약 100kg
동생 2명·지안, 둘째 서형희·남조카 2명	부인 펑리위안, 딸 1명
양친 피라 사망	부친 좌천 후 사망
성심여고 졸업 서강대 전자공학과 졸업 대만문화대 명예문학박사 카이스트 명예이학박사 부경대 명예정치학박사 서강대 명예정치학박사	칭화대 공정학과 졸업 칭화대 인문사회학원 법학박사
1974~1979 파스트레일리 대리 1998~2012 15~19대 국회의원 2004~2006 한나라당 대표 2007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후보 2011~2012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2013~현재 제18대 대통령	1974 중국공산당 입당 2002~2007 푸젠성 성장·지장상·상하이시 당서기 2007~2012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 중국 국가부주석 2013.3~현재 중국 국가주석,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 당 중앙위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 주석
2001.2 국회회의외교통상외교부 장관 2005.5 한나라당 대표지명 2006.11 한나라당 대표지명 2008.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2013.6 대통령 직격 국민방문	1995.1 무저우시 당서기 지명 2005.7 저장성 당서기 지명 2009.12 국가부주석 지명 2014.7 국가주석 지명 국민방문

있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문화 인적 교류와 관련, ▲문화교류회의 개최 ▲중국어-한국어 교사 파견 교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정례 개최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자살률 10만명당 29.1명... 10년 연속 1위

흡연율·의료비 증가율도 최고... 의료 인력 쪼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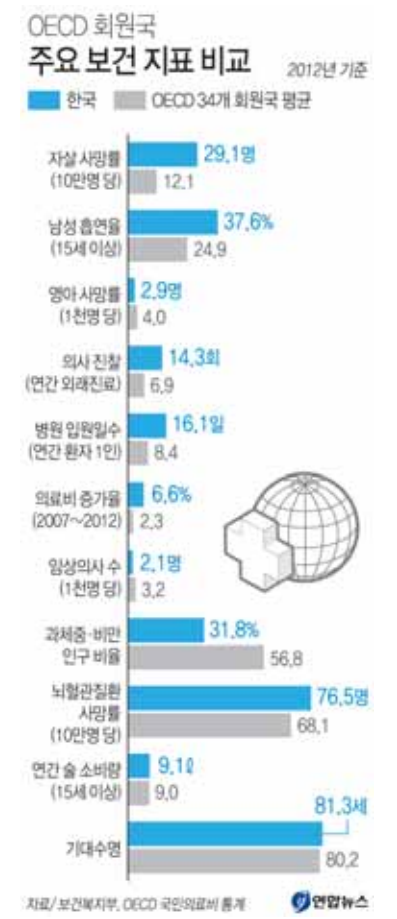
OECD 국민의료비 통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과 흡연율이 가장 높고, 의료비 증가 속도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 횟수와 입원 기간 등 국민의 전반적 의료 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인구 대비 의료 인력 규모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2년 기준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명)보다 무려 17명이나 많은 것으로, 부끄럽게도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37.6%인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도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였다. 회원국 평균(24.9%)을 12%포인트(P)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또 한국인은 통계상 가장 병원을 자주 찾고, 오래 입원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한 해 14.3회로 1위인 일본(16.1회)의 1.1배에 이르렀다. 환자 한 사람의 입원 기간(16.1일) 역시 평균(8.4회)의 1.9배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2년 기준



81.3세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었다. 2007년(79.4세)과 비교해 5년새 1.9년 늘어났 것으로, 증가 속도도 OECD 평균(1.2년)보다 빨랐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시주석, 9년 인연 다진 '라오핑여우'

(오랜친구)

2005년 첫 만남후 친분 쌓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초 각자 취임한 이후 회담장에서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박 대통령에게는 시 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으로는 가장 자주 만난 상대가 된 셈이다. 이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 부를 정도로 개인적 신뢰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05년 첫 만남을 가진 이래 9년밖에 되지 않는다.

두 정상은 2005년 7월 당시 저장성(浙江省) 당서기였던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

던 박 대통령은 지방방문 일정이 있었음에도 취소하고 시 주석을 2시간 넘게 만났다.

이후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2010년 10월 국가 부주석에 오르며 후진타오(胡锦涛) 당시 국가주석의 후계로 사실상 확정되자 축전을 보냈고, 시 주석도 박 대통령에 당선된 2012년 12월 축전을 보내는 등 서한으로 인연을 이어갔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갔으며, 한 달 뒤인 작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때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 3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3번째 회담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시진핑, '10년지기' 박준영 전 전남지사 초청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VVIP' 신분으로 서울대 강연장에 초청했다. 박 전 지사와 함께 초청을 받은 이는 10명 미만이다. 시 주석이 박 전 지사를 얼마나 '예우'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4일 오전 서울대에서 교내의 인사 5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는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외국인의 수반이 자신의 강연 장소에 전직 자치단체장을 직접 초청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인 일로 시 주석과 박 지사의 '10년지기'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시 주석이 저장성(浙江省) 당서기 시절인 지난 2005년 7월로, 전남도와 저장성 사이 우호교류 행사 때였다. 저장성은 전남도의 중국 1호 자매도시다. 이후 두 사람은 3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박 전 지사는 도지사, 시 주석은 저장성 당서기와 상하이 당서기, 국가부주석 신분이었다. 지난 2012년 4월에는 베이징에서 박 전 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당시 부주석과 단독회담을 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시 주석이 초청해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며, 그가 염원하는 중국의 번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7만명 육박

국민 100명중 3명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227개 시·군·구 중 20%가 넘는 49곳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작년보다 12만3839명이 늘어난 156만9740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주민은 6만8294명(광주 2만4466명·전남 4만38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14만1463명에 걸친 3.1% 수준이며, 광주시 인구가 147만2910명)보다 더 많다.

외국인주민이란 장기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 귀화자(혼인귀화자 포함), 결혼이주민, 외국인주민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외국인주민 수는 2011~2012년에는 전년보다 약 11%씩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방문취업제 만료 등 이유로 증가 폭이 2.6%로 급감했다 올해 다시 8.6%로 확대됐다.

결혼이민자 수는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로, 올해 14만9764명을 기록해 1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혼인귀화자(결혼이민 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 2007년 3만8991명에서 올해 9만4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혼인이민자 수를 합친 외국인 주민은 이 기간 12만6955명에서 24만203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 외국인 주민 자녀를 제외한 한국 국적 보유자는 14만6078명으로 전체의 9.3%이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0만 4204명(13%)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